

SINCE 1966 감성이 살아있는 사진전문지

# 월간 사진

# 5

VOL.496  
May 2009

## Monthly Photographer

서울, 풍경의 고찰 존 프라이올라  
사진으로 자서전 쓰는 박재성  
이름 없는 섬들의 도시 박지만  
자연과 하나된 인간 세오 조  
낮선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 유주연

## Monthly Issue

다문화가정 찍는 신혜선, 호텔 찍는 백승우  
김영갑 4주기, 못 잊는 사람들  
사진가가 사는 방법 화덕현  
불황 속 일본 사진출판의 희망  
포토에세이 캄보디아의 향토빛 길

광진구(광명) 1966년 5월 27일 등록(제10002) 1985년 12월 6일 3종 우체국(나경) 등재 4868 2009년 5월 1일 발행 정가 8,000원

Photography  
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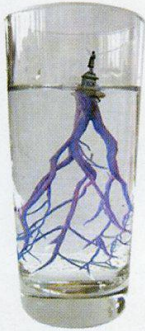


www.monthlyphoto.com



## 낮선 문화에 적응하는 또 다른 방법 주변 환경 마시기, 우주연

어항 속 작은 공간 안에도 집, 돌, 나무 등 하나의 작은 세상이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다. 금붕어가 좁디좁은 어항을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듯 인간도 세상의 작은 부분으로 순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금붕어가 어항을 집어 삼키고 세상이 조그만 컵에 담기는 통쾌한 상상을 해본다.







Digital Print, 21.6×28cm, 2006



Digital Print, 21.6×28cm, 2007

우주연의 작업 '주변 환경 마시기' (Drinking Your Surroundings)는 이민생활에서 느낀 이방인의 이질감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이 속한 낯선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그냥 한번에 마셔버렸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다소 엉뚱한 발상이 작업의 아이디어가 되었다. 작업은 여행 중에 촬영한 건축물이나 나무 그리고 그곳의 문화를 상징하는 대상을 찍어 프린트한 사진을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컵에 넣어 다시 촬영해 완성된다.

사진과 미디어를 통해 표현되는 작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작가에게 작업은 하나의 수집품이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관광지에서 흔히 파는 냉장고 마그네틱 수집이 취미라는 그녀는 사람들이 우표나 나비를 수집하는 것처럼 컵을 하나씩 모아가고 있다. 그녀는 '주변 환경 마시기'가 이처럼 일상적인 주변의 것들을 수집하는 일종의 다큐멘터리 작업이라고 말한다. 어렵거나 철학적이거나, 과장되지 않은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 말이다. 그래서 자신이 매일 사용하는 컵으로 작업을 하고 최종 작품 사이즈도 실제 컵 크기로 제작된다. 상세한 설명이 없어도 보는 이들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이기를 바라는 그녀의 예술관과도 잘 어울리는 작업이다.

우주연은 지난 200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의 드로잉, 페인팅 전공으로 유학을 떠나 현재는 콜로라도대학교의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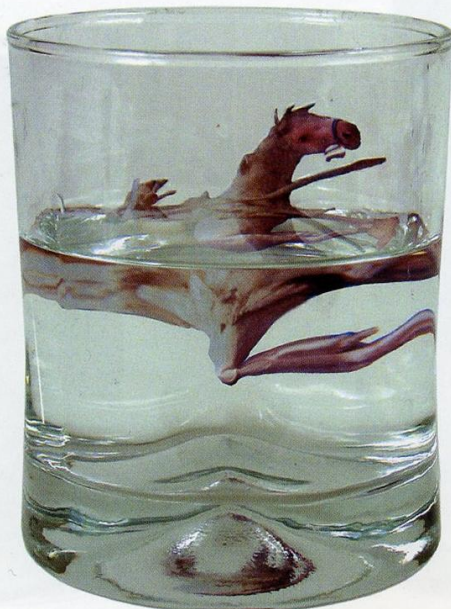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학 초기에 디지털 미디어를 연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진이나 영상 매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석사학위전에서는 비디오와 사진작업을 위주로 선보였다. 졸업 후에도 페인팅과 미디어아트를 함께 접목시킨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접해 보다 자유롭게 실험적인 작품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머물면서도 눈여겨 볼 전시를 미국에 돌아가 소개하기 위해 꼼꼼히 자료를 챙기곤 한다.

“몇 해 전에 리처드 니스벳(Richard E. Nisbett)이 지은 '생각의 지리학' (The Geography of Thought)을 읽은 적이 있어요.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생각의 방식과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설명한 책이에요. 특히 동양과 서양 사람들이 사물이나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지를 흥미롭게 비교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차이점 덕분에 서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끔 해주는 보완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미국학생들에게 한국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 문화 이질감 극복 위한 영뚱한 상상

'주변 환경 마시기' 작업은 미국 생활에 적응해가던 작가가 독일을 방문하면서 느낀 또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시작되었다. 작가는 미국과 다른 독일의 건물과 공원, 나무 등을 열심히 촬영했고, 찍은 사진들을 펼쳐놓고 보니 모두 여행지에서 관광객이 찍은 사진 같아 놀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껏 찍은 하나같이 관광객이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곳에 살지만 이방인이고 단지 관광객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국에 익숙해지고 이민을 와서 살면서도 문화충돌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일상생활에서는 무언가 제 주변의 것들과 섞이지 못하는 느낌이



Digital Print, 21.6×28cm, 2007



Digital Print, 21.6×28c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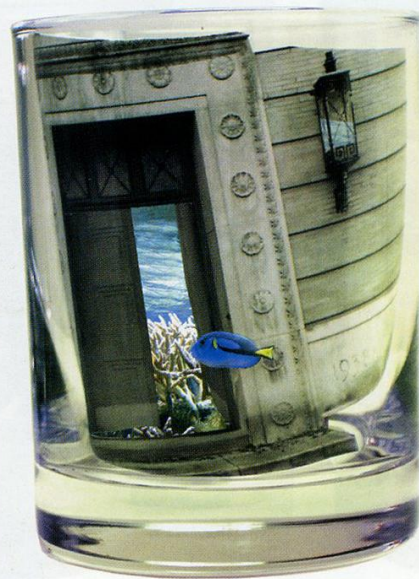
랄까, 항상 곁도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어요. 다른 문화를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문화에 온전히 흡수되어 내 것이 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6년 동안 이국땅에 살면서도 마치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어색함을 늘 느낀다고 한다.

‘주변 환경 마시기’는 작가가 살고 있는 타지의 문화를 온전히 습득하는 편찮으면서 간편한 방법을 없을까 궁리하던 차에 그냥 마셔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매일매일 필요한 비타민을 한 알 꿀꺽 삼켜 흡수하듯 낯선 환경을 컵에 담아 마시는 작가의 바람이 반영된 단순하면서도 재밌는 작업이다.

### 유리컵에 담긴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다문화

작업에 사용되는 사진들은 모두 작가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다. 오래된 성당이나 넓은 공동묘지, 큰 보름달 등 우주연은 주변의 풍경과 환경을 기록한다. 어딜 가든 이방인이었던 작가는 오래된 서양식 건물에 얽힌 추억이나 주관 없이 상상력을 발휘했다. 화려한 성은 동화책에 나오는 거대한 성으로, 어두침침한 고딕풍의 성당은 공포영화 속 드라큘라가 나올 것만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자연스럽게 컵 속의 이미지들은 동화적이고 때론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렇게 모은 이미지들은 3~5cm 크기로 작게 출력되어 사진 속 사물의 모양 그대로 오려져 물이 담긴 컵에 담긴다. 이때 물에 의해 이미지는 왜곡되거나 확대되어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고 작가는 이 모습을 다시 촬영한다. 그리고 작가가 상상했던 이미지나 이야기들이 좀더 서술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디지털 합성을 하기도 한다. 오래된 건물을 처음 봤을 때의 강렬한 느낌을 건물 안에 들어서면서 느꼈던 긴장감과 신비로움 등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물고기나 해초 등 바다 속 이미지들을 건물 안에 넣거나 건물의 큰 대문 옆의 오래된 등을 강조한다. 작가는 이처럼 각각의 장



Digital Print, 21.6×28cm, 2004



Digital Print, 21.6×28cm, 2006





Digital Print, 21.6×28cm, 2004



Digital Print, 21.6×28cm,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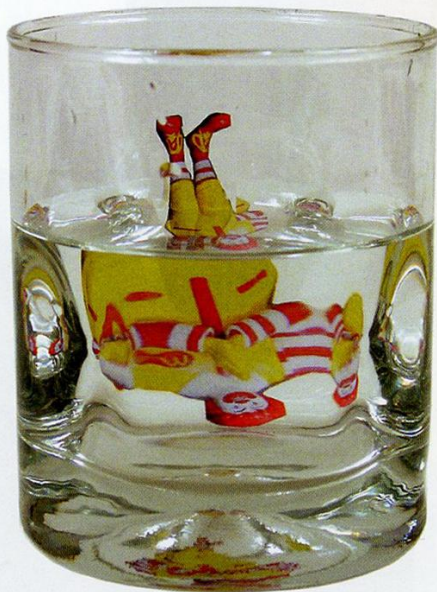
Digital Print, 21.6×28cm, 2006

소에서 느꼈던 여러 감정들을 초현실적이거나 동화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 “물이 든 평범한 컵이지만 여러 가지 맛이 나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항의 물고기는 좁은 어항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겠죠. 저도 어항 속 금붕어와 같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의 환경이 저에게 속한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세상을 컵에 담아 마셔버리면 상황이 도치되는 거죠. 금붕어가 어항을 집어 삼키기는 것은 현실에선 불가능하지만 작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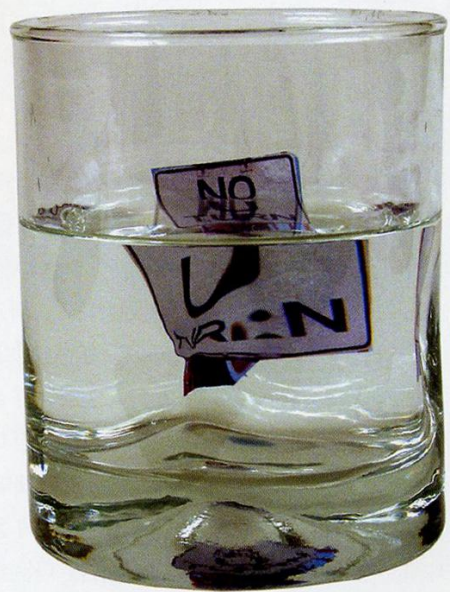
### 이민, 이사 경험 반영된 ‘이동’이 테마

‘주변 환경 마시기’의 세부 작업인 ‘4월의 달력’은 다큐멘터리 식으로 접근한 일련의 미디어 작업이다. 작가가 해야 할 일이나 잡념을 적어둔 다이어리에서 착안한 것으로, 4월 한 달 동안 돌아다녔던 곳을 꼼꼼하게 기록한 다음 여기에 맞는 컵을 만들어 각각의 날짜에 링크를 시켰다. 모니터에서 달력의 날짜를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작가의 어제, 오늘, 내일을 각기 다른 컵으로 볼 수 있어, 혼자서만 몰래 적어두는 일상의 시시하고 사소한 감정들을 추상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된 컵 이미지로 보여주는 작업이다. 이처럼 우주연의 작업에는 또 하나의 일상과 움직임이라는 맥락이 존재한다.





Digital Print, 21.6×28cm, 2007



Digital Print, 21.6×28cm, 2007

그녀는 요즘 미국의 중국식 레스토랑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테이크 아웃 박스(Take-out box)나 작은 편지봉투를 활용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대상은 작가의 작업에서 중요한 테마로 컵, 음식포장박스, 편지봉투 등은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사물들은 무언가를 담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항상 이동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설치나 사진작업에서 쉽게 응용이 가능해 다양한 작품 제작이 시도된다는 점에서 이동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작가는 “이민뿐만 아니라 직장 혹은 가족 때문에 항상 이동을 하며 살다보니 작품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며 “이 작업 또한 어느 낯선 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나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MP

글 | 김소윤기자, 디자인 | 김지희기자

## 우주연 Woo, Joo-Yeon

www.spacekite.net

2007~현재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미대 조교수

### Education

- 2005**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미술학 석사,  
Drawing & Painting 전공 및 Digital Media 연계연구  
**2003** 홍익대 예술대학 미술학 석사, 서양화전공  
**2001** 경북대 예술대학, 미술학 학사, 서양화전공

### Solo Exhibition

- 2007** 미시애그나 아트센터, 알투나, 펜실베이니아, 미국  
**2005** 워스트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미국

### Selected Group Exhibition

- 2009** Bit, Byte, Dot, Spot: Post-digital Art 미디어작가 초대전  
(템파현대미술관, 플로리다, 미국)  
POLIFACETICA: ETNOGRAFIA GRAFICA 공동설치프로젝트  
(프랑스대사관 로비, 멕시코)  
공간유희(텔리비전 12, 서울, 한국)  
AZAG: Mirroring War(티노코 팔라시오스갤러리, 오악사카, 멕시코)

### 2009

- All Small Redux(멜튼갤러리, 아그네스캣대학, 조지아, 미국)  
Attributes 공모작가전(갤러리코리아, 뉴욕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2008 9×12 Works on Paper Show  
(폴스 웰스 커뮤니티 아트센터, 폴스 웰스, 텍사스, 미국)  
Post Tractatus 3개국 순회전(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예술과 나(봉산문화센터, 대구, 한국)  
Art & Social Change, Culture & Memory  
(예루살렘 국제센터, 팔레스타인)  
디지털미디어 페스티벌 Smart Multimedia Festival  
(오픈컨셉갤러리, 그랜드레피즈, 미시건, 미국)  
디지털미디어작가 10인전 Big Food Pictures  
(브라우만 갤러리, 펜실베이니아, 미국)  
**2006** 오를라호마주립대 교수전(가디너갤러리, 오를라호마주립대, 미국)

### Award

- 2001** 제12회 미술세계 대상전 입상(서울아트센터, 서울, 한국)  
**2000** 제19회 신조미술협회전 금상(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  
제19회 대한민국국전 입상(과천현대미술관, 과천, 한국)